

## 2013 2. 17 사순 제 1 주일

제 1 독서 : 신명기 26, 4-10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고백 >

제 2 독서 : 로마서 10, 8-13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고백.>

복 음 : 루카 4,1-13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은 사순 제 1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동안 오늘 강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서적을 읽고 묵상과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사순절을 맞이하시면서 독서와 복음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일 강론 말씀을 드리면서, 바오로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의지로 이세상에 육을 취하여 오셨고 고통과 수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신앙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제 1 독서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추수기에 십일조를 바치면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 다니는 아람인 이었습니다. 그는 몇안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즉 자기들이 누구이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십일조를 바치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전승을 되새기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살기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이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아직도 이 성서구절을 자식들에게 암기시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고, 세계에서 갑부가 제일 많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계의 초강국인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 즉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삶속에서 비슷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너 머리 좋지 않아? 너 능력도 있고 똑똑하잖아? 뛰어 내려봐! 돈도 있잖아? 배고프면 얼마든지 빵을 사먹으면 되는데 .....!” 내 안에서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살고자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유혹에 **“하느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며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십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모든 유혹에 대항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존재를 오로지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사업이 잘 될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 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만 모든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영화 피에타중(저는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사체의 유혹에 휘말리는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의 심리가 곤궁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독약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독약은 어디까지나 독입니다. 절대로 몸에 약이 될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독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때 가능한 빨리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만 빠져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연속일 뿐임을 제자신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어나오기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독약을 마셨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럴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빌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때에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내려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는 의지가 없으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기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느님도 어떻게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위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옹고집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내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진정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 내 능력만 믿고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그분을 계속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찾고 또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사순시기동안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함께 체험하며 많은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